

Ⅲ. 최신 환경 단신

1. 환경 정책 동향

● 폐기물계획 세워야 재개발 가능 (매일경제 : 97/08/21)

- 환경부는 최근 건설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부터 부적정처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'건설폐기물 재활용 종합대책'을 수립함
- 앞으로 건설업자가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
● 울산공단 150여개 업체 공해배출금 25억 첫부과 (중앙일보 : 97/08/23)

- 올해 처음 부과되는 울산지역 대기공해 배출업체에 대한 '대기배출 기본 부과금'이 약 25억원으로 결정됨
-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에 따르면 9월초 부과될 을 상반기분 대기배출 부과금 산정액이 공단내 1백42개 업체에 24억6천4백여 만원, 공단 밖의 10개 업체에 2천6백여만원등 모두 24억9천여 만원인 것으로 집계됨

● 대형 폐수배출업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(연합통신 : 97/09/03)

- 환경부는 전체 오염물질발생량의 49%를 차지하는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비해 크게 낮은데다 환경목표수질지역별로 서로 차이가 심해 이를 하수종말처리장과 비슷한 선으로 강화하기로 했음
- 환경부는 이에 따라 하루 5천t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배출허용기준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ppm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

● 수질환경기준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(중앙일보 : 97/09/05)

-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녹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수질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음
- 환경부는 5일 상수원에서의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팔당호와 대청호, 낙동강유역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산업폐수시설(공장)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는 질소(60ppm/ℓ)와 인(8ppm) 배출기준을 내년부터는 주암호와 충주호, 소양호 등 주요 상수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음
- 또 현재 BOD(생화학적 산소요구량), 부유물질, 총질소, 총인 등 14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수를 3~4년안에 선진국 수준인 28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하고 우선 추가될 벤젠, 톨루엔 등 유기화합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시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
- 이와 함께 납의 환경기준을 현재 ℓ당 0.1ppm에서 0.01ppm으로, 비소는 0.05ppm에서 0.01ppm으로 10배와 5배씩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음

● 조달청, "환경관련 PQ 대폭 개편"(매일경제 : 97/09/09)

- 조달청 여정휘 시설국장은 8일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최한 세이프티 리더스클럽 조찬간담회에서 "현재의 안전과 환경관련 제도가 사업장간 형평이 맞지 않다"며 이같이 밝힘
- 조달청은 또한 ISO 국제 인증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증기관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적용하도록 해 ISO 남발을 억제하고 인증기관간 차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PQ제도를 개편키로 함

2. 환경 기술 동향

● 에너지기술연구소 보일러 폐열회수장치 개발(한국일보 : 97/08/22)

-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연료기계개발연구팀 박상일 박사팀은 최근 보일러 배기가스에 열교환기를 설치해 방출되는 폐열을 재활용, 연료를 8%까지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

● 폐컴퓨터 재활용공장 추진 (서울경제 : 97/09/09)

- 사단법인 한국중고컴퓨터협회(가칭)가 폐컴퓨터로부터 금, 은 등의 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
- 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연간 1백만 대의 컴퓨터가 버려지고 있는데 재활용할 경우 금 7백kg, 은 1톤, 동 1백톤 이외에도 백금, 팔라듐, 로듐 등 다량의 유용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함
-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연간 1백억원의 자원회수 효과와 함께 중금속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됨

● 중금속 오염 정화 환경수증 개발(한국일보 : 97/09/12)

- 산림청 산하 임목육종연구소 노은운, 문홍규 박사팀은 12일 유전자 조작으로 오염된 땅과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현사시나무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힘
- 연구팀은 최종 확인작업이 끝나면 도심은 물론 농경지 및 상수원 인근지역의 환경정화수로 상용화할 방침임

● 일본 "부엌쓰레기 발전활용" (한국일보 : 97/08/25)

-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전력개발사는 오는 10월부터 가정용 쓰레기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것이라고 밝힘
- 부엌쓰레기를 분쇄, 건조한 뒤 고체로 만들어 연료로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은 일반 쓰레기 소각로보다 유독성 가스를 적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, 전력생산량도 구형시설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
- 신기술을 이용한 발전소는 또 100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로 3만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일반 쓰레기소각 발전소 발전량의 2배에 달하는 것임

3. 국제 환경 동향

● '아시아경제 공해가 천적' 경고 (경향신문 : 97/08/22)

- 아시아의 환경오염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를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아시아개발은행(ADB)이 경고함
- ADB는 아시아 공해실태를 파헤친 최신 보고서에서 "환경파괴로 인한 손실이 이미 놀랄 만큼 높은 수위에 도달했다"고 지적하고 "서둘러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아시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"이라고 진단함

●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5차 회의 몽골서 열려 (한겨레신문 : 97/08/22)

- 한국과 북한, 일본, 중국, 몽골 등 다섯 나라가 참가하는 『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(EABRN)』 제5차 회의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
-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관광 개발과 접경지역 보전을 위한 협력에 대해 각국이 주제 발표와 토론, 몽골의 복칸울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시찰과 평가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

● 멕시코만 오염으로 '죽음의 지역' (한국일보 : 97/08/25)

- 농업용 화학비료가 미시시피강에 흘러 들어감에 따라 멕시코만 일대에서 매년 6,000평방 마일이 『죽음의 지역』으로 오염돼 클린턴 행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가 보도함
- 이 같은 오염의 주범이 미국 아이오와와 미주리, 일리노이주 등의 농장에서 나오는 수백만 톤의 화학비료라며, 저산소증으로 알려진 이같은 현상이 매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발생, 각종 수생동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힘